



가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와 해외투자자의 채권투자 비중 확대

박정희 선임연구원

-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12년 3월 말 자금순환 통계(속보치)¹⁾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자산²⁾은 전년대비 0.7% 증가한 1,513조 3,619억 엔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.
 - 가계의 현금 및 예금은 전년대비 2.3% 증가한 835조 173억 엔을 기록해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, 이는 지난해 3월에 발생한 지진 해일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가계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반영된 것임.
 - 특히, 저금리 등으로 유동성 예금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³⁾
 - 그 외 주식 및 기타 증권과 투자신탁은 전년대비 각각 1.8%, 4.4% 감소한 97조 7억 엔과 60조 8억 엔을 기록한 반면, 가계의 외화자산은 38.6조 엔으로 3년 연속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음.
- 한편, 2012년 3월 말 국채발행 잔액은 전년대비 4.9% 증가한 919조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, 이 중 해외투자자의 국채 보유 잔고는 전년대비 23.0% 증가한 76조 4,300억 엔으로 나타남.
 - 국채 잔고 919조 엔 가운데 해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.3%로 전년대비 1.2%p 증가하였으며, 10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준임.
 - 이는 유럽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일본 국채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해외투자자의 일본 국채 수요가 늘었기 때문임.
 - 해외투자자에 의한 국채 투자는 장기 채권 보다는 단기 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, 단기 채권은 1조 7,416억 엔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, 장기 채권은 3조 5,698억 엔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음.

1) <http://www.boj.or.jp/statistics/sj/index.htm/>.

2) 구성항목 비중은 현금 및 예금이 55.2%(현금 3.6%, 정기예금 30.7%, 유동성예금 20.5% 등), 주식 외 증권 6.3%(국채 1.8%, 지방채 0.1%, 회사채 0.2%, 투자신탁수익증권 4.0%, 신탁수익권 0.1%), 주식 및 출자금 6.5%, 보험 및 연금준비금 27.9%(보험준비금 14.6%, 연금준비금 13.3%), 미수금 2.0%, 대외증권투자 0.8% 등임.

3) 예금 내역별로는 유동성 예금이 4.9% 증가한 310조 엔을, 정기예금은 0.6% 증가한 464조 엔을 기록하였음.

- 해외투자자들의 운용기간 단기화를 고려한다면, 채권시장의 안정적 증가세는 단언할 수는 없다는 분석임.
- 한편, 국내 금융 중개기관(은행, 보험회사)이 보유한 국채 규모도 전년대비 5.6% 증가한 612조 엔으로 나타났으며, 국채 잔액 대비 비중은 전년대비 0.5%p 상승한 66.6%를 기록함.

(일본은행 外, 6/19)